건설자재값 급등·수급난 '이중고'

건협 전북도회 "가격 상승분 공사비 반영해야"… 전북도 등에 건의문 발송

천정부지로 치솟는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과 수급 불안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사현장의 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들과 달리 납품업체와 연간 계약을 맺지 못해 이미 오른 현재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공사중단 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건설자재 값 급등사태와 관련해 정부 및 지자체의 선제 대응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공사현장이 중단·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자재값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청 및 도내 시·군청 계약담당부서와 사업부서에 긴급 건의문을 5일 발송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전쟁으로 인한 철강재·시멘트 등의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이 상승해, 건설현장의 공사중단 및 공정지연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양한 수급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기간연장 미조치, 계약금액 조정 기피 등 자재가격 급상승의 여파가 고스란히 건설업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재 건설공사가 본격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재 수급 대란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협회는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월 대비 원유(66.6%), 유연탄(256%), 철스크랩(63.3%)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근가격은 75만원에서 112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건설장비 연료인 경유가격은 리터당 1,317원에서 1,710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상태로 4월 중순 이후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게 되면 건설업체는 신규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방섭 회장은 "이번 자재대란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토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희 기자

겨울철 사료 맥류 수확시기 조절 '중요'

농진청, 풋베기 마른풀용은 이삭 팰 때

배합사료용은 이삭 달리고 수량 많아질 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규제와 마른풀(건초)을 수출하는 주요 나라들의 생산량 감소로 애그플레이션의 위협이 발생, 풀사료와 배합사료 원료곡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철 사료작물을 재배할 때 용도에 맞게 수확시기를 조절하면 조사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일 농진청에 따르면 가축에게 풋베기 마른풀로 먹일 때는 영양성분이 많은 이삭패는 시기(출수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다른 원료와 섞는 배합사료로 먹일 때는 이삭이 달리고 수량이 많아지는 때 수확하는 것이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로 적합한 작물은 겨울철 사료 맥류인 트리티케일, 귀리, 호밀, 청보리며, 영양이 풍부하며 풀과 알곡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마른풀용은 물론 배합사료용에도 적합한 작물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시험 결과, 가축영양 측면에서 유용한 조단백질과 TDN(총가소화영양분함량)은 이삭이 팰 때 더 많고 조사료 수량은 수확적기 이후 알곡이 포함되면서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삭 팰 때에 비해 적기에 수확했을 때 단백질 함량은 1~8%포인트, TDN은 4~7%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수량은 이삭 팰 때보다 적기가 45~98%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는 겨울철 놀리는 농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수입 대체 및 사료 자급률 향상과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확시기를 정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조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중부작물과 고종철 과장은 "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겨울철에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사료 맥류 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올해 첫 해외명품대전

롯데백 전주점, 새봄 세일 맞아

오늘부터 10일까지 이벤트홀서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김상호)은 새봄 정기세일을 맞아 6일부터 10일까지 6층 이벤트홀에서 '2022년 첫 해외명품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구찌, 생로랑, 프라다, 지방시 등 10개 해외 유명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와 핸드백, 지갑, 슈즈등 품목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대표 한정 상품으로는 보테가베네타 클러치(정가 123만원) 98만5,000원, 버버리 쇼퍼백(정가 149만원) 105만원, 생로랑 숄더백(정가 240만원) 204만원 발렌티노 클러치(정가 68만원) 47만 5,000원 등 품목 한정 세일을 진행한다.

또한 기간 중 60/100/200/300/500/1,000만 원이상 구매 시 엘포인트1.5/2.5/5/7.5/12.5/25만 점 적립과 무이자 등 사은행사도 같이 진행 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김경수 패션팀장은 "전주점 최대 물량의 행사인 만큼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격 명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새봄 정기세일을 맞아 6일부터 10일까지 6층 이벤트홀에서 '2022년 첫 해외명품대전'을 진행한다.

전은, 전북애향자학재단에 장학기금 50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5일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장학기금은 어려운 생활 환경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도내 출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학업에 열중하며 우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외에도 전북은행은 전북애향장학재단에 1992년부터 올해까지 총 15억 5,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도 향토은행으로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애향운동본부 윤석정 총재, 신정균 사무국장,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들이 꿈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3월 전북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보다 1.0%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한 에너지 가격 영향 커

2022년 3월 기준 생활물가지수는 108.09(2020년=10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은 불가피 한 상황이지만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큰 요인이다. 가계 실질소득도 인플레이션 장기화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2년 3월 전북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8(2020년=100)로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4.3%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성질별 동향으로는 상품은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5.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공업제품이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7.2% 각각 상승했으며, 전기·수도·가스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했다. 반면 농축 수산물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1.0%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도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개인 서비스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했고, 집세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으며, 공공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목적별 동향으로는 전월대비 교통(5.0%), 음식 및 숙박(1.1%),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0.6%) 등은 상승했고,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6%), 보건(-0.4%), 통신(-0.2%)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는 교통(12.9%), 음식 및 숙박(6.3%), 기타상품 및 서비스(4.5%) 등은 상승했고, 보건(-0.1%)은 하락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5.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락품목별로는 휘발유(11.9), 경유(17.3), 귤(8.3), 배추(8.7), 커피(8.2) 등이 상승했고, 유치원납입금(-15.8), 깻잎(-14.1), 부추(-15.1), 양파(-9.6), 호박(-9.9) 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신선채소류는 전월대비 2.8%, 전년동월대비 8.6% 각각 하락했으며, 신선어개류는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했고, 신선과실류는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3.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러·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물가 상승률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국제 곡물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 큰 상승 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로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도 국제 에너지와 곡물시장, 공급망 차질 등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희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은 5일 임직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속 ESG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2050 탄소중립 '생활 속 ESG' 실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은 5일 임직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속 ESG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전북본부는 식목일을 맞아 임직원 및 고객 대상 공기정화식물을 전달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생활화, 머그컵/텀블러 사용 권장, 페이퍼리스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정하고 적극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협금융 10주년을 맞아 출시한 ESG 특화상품인 'NH올바른지구 대중교통안전보험' 가입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 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탄소배출 감소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개발됐다. 특히 가입 1건당 나무 1그루를 기부하는 ESG실천서약에 전북본부 직원이 동참하며 1인 1나무 기부,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나타냈다.

장경민 본부장은 "일상생활속의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ESG 경영을 정착시켜 '농협이 곧 ESG'라는 슬로건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업인 실익 증진 기여 '인정'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 '함께 하는 조합장상' 수상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5일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에게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수여했다. 농협중앙회의 '함께하는 조합장상'은 탁월한 리더십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1,117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매월 극소수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한 김원철 조합장은 2021년 말 기준 총 572억원의 경제사업 실적을 달성하는 등 부안농협 성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또한 지난해 지역 대표 벼 품종인 신동진의 병해충 피해를 극복하고자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해 조합장이 직접 출연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당일 1000포(10톤)의 완판을 기록해 온라인 사업 부문의 판로개척에 기여했다. 아울러 신소득작목 '스마트팜 딸기작목반'을 육성해 지난 3월 캄보디아 첫 수출에 성공해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했다.

한편 부안농협은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 장학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랑나눔 바자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및 조합원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을 대변함은 물론 농업·농촌 발전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기 위해 일미칠근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박동구 전북농기원장, 정읍 농업현장 방문

박동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이 5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업현장을 방문했다.

정읍시는 박 원장이 농업, 농촌의 발전과 지역 농업기술센터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읍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정읍 농업 현황과 주요 추진업무를 청취하고, 농촌지도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농산물 가공센터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지역 내 과채류 농가의 70%에 묘를 공급하고 있는 내장산프로그영농조합법인과 채소 잡곡을 활용한 가공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국내 최대규모의 라벤더 농장 '허브원'을 방문해 앞으로 허브를 테마로 한 치유농업 육성에 대한 전망과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